

기술분석보고서 | IT

아이케이세미콘(149010)

- ▶ 요약
- ▶ 기업현황
- ▶ 시장동향
- ▶ 기술분석
- ▶ 재무분석
-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서울평가정보(주) 작 성 자 박진희 책임

[▶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공개 상태일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3449-145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케이세미콘(149010)

자동차용 반도체로 성장축을 전환하는 고신뢰성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기업

기업정보(2026.05.29 기준)

대표자	윤경덕
설립일자	2000년 7월 4일
상장일자	2014년 11월 14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반도체 제조업
주요제품	비메모리 반도체 등

시세정보(2026.05.29 기준)

현재가(원)	4,200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131
발행주식수	3,120,000주
52주 최고가(원)	6,600
52주 최저가(원)	2,930
외국인지분율	-
주요주주	윤경덕 외 7인

■ 가전·산업용 반도체 기반으로 자동차용 반도체 중심의 성장 추진 중

아이케이세미콘(이하, 동사)는 2014년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 팹리스 기업으로, ASIC, Analog IC, Logic IC 등을 설계하고 제조·패키징·테스트는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한다. 매출은 차량용 반도체, 전원관리 반도체, LED 구동 및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인터페이스 IC, IR Receiver 등에서 발생하며, 특히 Automotive IC는 단일 품목 기준 매출 비중이 가장 큰 핵심 성장 사업이다. 동사는 기존 가전·산업용 반도체 기반을 유지하면서, 고객 맞춤형 ASIC 개발 역량과 국산화 경험을 바탕으로 자동차용 고신뢰성 시스템 반도체 중심의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 차량 전장화·전동화·안전 기능 고도화로 수요가 확대되는 성장 시장

목표시장은 차량 내 전자제어 기능을 구현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으로, 전원 제어, 모터 구동, 배터리 관리, 조명 제어, 차량 통신, 센서, 인포테인먼트, 운전자 보조 기능 등 전장 시스템 전반에 적용된다. 차량 1대당 반도체 탑재 수와 금액이 증가하고 있고, 전기차·하이브리드차 확산, 안전·편의 사양 고도화,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확대가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다만 진입 장벽이 높고, 글로벌 대형 반도체 기업이 주도하고 있어 중소형 팹리스 기업은 특정 적용처와 고객 맞춤형 제품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

■ Automotive IC 중심의 중장기 성장 기반 강화 중

동사는 최근 해외 법인 일부를 청산하는 한편, Automotive IC 중심의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2025년 결산 기준 보통주 1주당 200원의 현금배당을 통해 주주환원 기조도 유지하고 있다. Commercial 제품군을 통해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차량용 아날로그·전원관리·통신 제어 반도체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동사의 성장성은 신규 제품 개발 자체보다 실제 양산 적용, 적용 차종 확대, 반복 수주 확보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23	156.8	-26.7	20.3	13.0	18.3	11.7	15.3	12.3	22.7	587	4,040	15.1	2.2
2024	178.8	14.0	20.2	11.3	20.9	11.7	15.7	12.9	21.0	670	4,477	7.8	1.2
2025	172.3	-3.7	16.4	9.5	15.1	8.7	10.7	8.7	19.9	483	4,730	11.1	1.1

기업경쟁력

고객 맞춤형 팹리스 사업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 요구 기반의 ASIC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 전장 부품에 최적화된 반도체를 설계하고 양산 적용까지 연결할 수 있는 사업화 역량 보유
국산화 기반 품질 대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전·산업용 반도체에서 축적한 국산화 경험과 품질 대응력을 자동차용 반도체 영역으로 확장하며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 진행 중
설계 중심의 경량화된 운영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부설연구소와 외부 제조·테스트 네트워크를 활용해 설계 역량에 집중하는 팹리스 운영 구조 유지

핵심 기술 및 적용제품

LIN 통신 및 전원관리 IC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 내 바디 전장 모듈 간 저속 제어 신호를 안정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고, 차량 전장 부품에 필요한 전압을 안정적으로 공급·조절하는 기술로 알터네이터 제어, 차량용 레귤레이터, 바디 전장 제어 IC 등에 적용
모터 구동 및 보호 회로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 내 소형 모터의 회전 방향, 속도, 작동 시간을 제어하고, 과전압, 과열, 과전류 등 이상 조건에서 회로와 부품을 보호하는 기술로, 사이드미러, 룸램프, 소형 모터 구동 등 차량 편의·바디 부품 제어에 활용
절전형 전력 변환 및 전류 감지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전압부와 저전압부를 전기적으로 분리하면서 필요한 전력을 전달하고, 배터리와 전력 시스템의 전류 흐름을 측정해 전력 제어와 보호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로, 전기차·하이브리드차의 전력 제어, 배터리 관리, 회로 보호 기능 수요에 대응

시장경쟁력

전장화·전동화 수요 대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 전장화와 전동화 확산에 따라 확대되는 전원관리, 모터 제어, 통신 제어 중심의 Automotive IC 수요에 대응 가능
세부 적용처 중심의 차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대형사가 주도하는 시장 내에서 특정 적용처와 고객 맞춤형 제품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진입 기회 확보
고객 승인 기반 장기 공급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용 반도체의 높은 인증 장벽과 장기 공급 특성은 동사가 고객 승인을 확보할 경우 안정적 매출 기반으로 전환될 가능성 제공

VRIO 분석 (VRIO Analysis)

VRIO(브리오) 분석이란 기업이 보유한 경영자원과 활용 능력을 가치(Value), 희소성(Rarity), 모방 가능성(Imitability), 조직(Organization)이라는 기준으로 분석하는 도구

			
<p>가치(Value)</p>	<p>희소성(Rarity)</p>	<p>모방가능성(Imitability)</p>	<p>조직(Organiza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용 전원관리·모터 구동·통신 제어 반도체 설계 역량은 자동차 전장화와 전동화 흐름에 대응할 수 있어 사업적 가치가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용 반도체의 고객 승인 경험, 국산화 개발 이력, 세부 적용처 중심의 ASIC 역량은 중소형 국내 팹리스 중 일정 수준의 희소성을 갖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로 설계 자체는 모방 가능성이 있으나, 장기간 축적된 고객 검증 이력, 신뢰성 데이터, 양산 적용 경험은 단기간에 복제하기 어렵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팹리스 구조와 기업부설연구소, 외부 제조·테스트 네트워크를 활용해 보유 기술을 사업화할 조직 기반을 갖추고 있다.

I. 기업 현황

가전·산업용 반도체 기반으로 자동차용 시스템 반도체 중심의 성장 추진 중

동사는 2014년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 팹리스 기업으로, ASIC, Analog IC, Logic IC 등을 설계하고 제조·패키징·테스트는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한다. 매출은 차량용 반도체, 전원관리 반도체, LED 구동 및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인터페이스 IC, IR Receiver 등에서 발생하며, 특히 Automotive IC는 단일 품목 기준 매출 비중이 가장 큰 핵심 성장 사업이다. 동사는 기존 가전·산업용 반도체 기반을 유지하면서, 고객 맞춤형 ASIC 개발 역량과 국산화 경험을 바탕으로 자동차용 고신뢰성 시스템 반도체 중심의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 기업 개요

동사는 2000년 7월 법인으로 설립된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으로 2014년 11월 코넥스시장에 상장하였다. 동사는 ASIC(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주문형 반도체), Analog IC(Integrated Circuit, 집적회로), Logic IC 등을 설계·판매하는 팹리스(Fabless) 기업으로, 파운드리(Foundry)와 OSAT(Outsourced Semiconductor Assembly and Test)에 제조·패키징·테스트를 위탁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핵심 사업모델은 반도체 설계 역량을 기반으로 특정 고객의 적용처에 맞춘 제품을 개발하고, 웨이퍼 제조와 패키지·테스트는 외부 전문업체를 활용해 양산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차량용 반도체의 품질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13년 테스트 하우스 자회사를 설립해 운영해 왔으며, 이는 자동차용 반도체의 장기 신뢰성 검증과 고객 승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조로 판단된다.

매출은 차량용 반도체, 전원관리 반도체, LED 구동 및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데이터 통신용 인터페이스 반도체, IR(Infrared, 적외선) Receiver 등 다양한 시스템 반도체 제품군에서 발생한다. 특히 자동차용 반도체는 알터네이터(Alternator), 와이퍼, 방향지시등, 룸램프, 사이드미러, LIN(Local Interconnect Network) 통신 기반 제어, 절연형 플라이백 컨버터 등 차량 전장 부품에 적용되고 있다. 주요 고객군은 국내 자동차 관련 업체, 국내외 가전 및 산업용 전자제품 업체, 소방·통신·전력 계측 관련 업체로 구성된다. 동사는 국내 H·K사,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 G사, 전기차 제조사 B사 등에 자동차용 반도체를 납품하고 있으며, 중국·인도·일본 등 해외 시장에서도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동사의 핵심 경쟁력은 장기간 축적한 차량용 반도체 설계 경험, 고객 요청 기반 ASIC 개발 역량, 누전차단기·TR Array·차량용 IC 등 일부 제품군에서의 국산화 경험으로 요약된다. 향후 동사는 기존 가전·산업용 반도체 매출 기반을 유지하면서 자동차용 고신뢰성 시스템 반도체 중심으로 성장 축을 전환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동사의 주요 연혁

연월	내용
2000.07	법인 설립
2005.07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07.08	LED DRIVER(Lighting) IC 개발(İK280X)
2010.12	자동차 발전기 IC 개발 계약 체결(K사 İK8001)
2013.07	Test House 자회사 설립(A-TEST)
2014.11	코넥스 시장 상장
2016.10	반도체 전문 Global Distributor(Future)와 판매 대행 계약 체결
2017.07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우수기술연구센터' 지정
2023.01	자동차 배터리용 LIN통신 반도체 개발완료(İK8008)
2025.11	전기자동차용 절연 반도체 개발완료(İK8009)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아이케이세미콘(149010)

■ 주주 현황

2025년 말 기준 동사의 최대주주는 윤경덕으로, 전체 발행주식(3,120,000주) 중 1,810,060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지분의 58.01%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이승숙 외 6인의 특수관계자가 295,566주(9.47%)의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을 합계는 67.48%이다. 나머지 1,014,374주(32.52%)는 소액주주 등 일반 주주가 보유하고 있다.

지배구조 측면에서 동사는 창업자 겸 대표이사 중심의 소유·경영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장기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한 차량용 반도체 사업에서 의사결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 반면, 특정 최대주주 중심의 지분 집중 구조는 외부 주주의 경영 감시 기능, 유동성, 자본시장 접근성 측면에서 한계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동사의 지배구조는 안정성과 폐쇄성이 병존하는 형태로 판단된다.

[표 2] 동사의 주요 주주 현황(보통주 기준)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관계
윤경덕	1,810,060	58.01%	최대주주
이승숙 외 6인	295,566	9.47%	특수관계인
기타 주주	1,014,374	32.52%	
합계	3,120,000	100.00%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사업 영역

사업 영역은 적용 시장과 제품 기능을 기준으로 Automotive, Commercial, IR Receiver 부문으로 구분된다.

Automotive 부문은 아이케이세미콘의 핵심 성장축으로, 자동차 전장 시스템에 적용되는 고신뢰성 반도체 제품군을 포함한다. 자동차용 반도체는 불량 발생 시 안전과 직결될 수 있어 높은 신뢰성과 내구성이 요구되며, 일반 산업용 제품보다 설계 난이도와 진입장벽이 높은 영역이다. 주요 제품은 알터네이티브 제어용 IC, 와이퍼 및 사이드미러 모터 구동 IC, 룸램프 및 스마트 라이트 제어 IC, 방향지시등 LED Driver IC, 자동차용 LDO/Regulator, CAN/LIN 통신 IC, Flyback Converter 등이다. 특히 배터리 충전 제어, 모터 제어, 조명 제어, 전원 관리, 차량 내부 통신 등 차량 전장화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담당한다. 동사는 자동차 반도체 분야에서 장기간의 선행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IP와 신뢰성 설계 역량을 축적해 왔으며, 국내외 자동차 고객사 및 전장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적용 제품을 확대하고 있다.

Commercial 부문은 자동차 외 시장에 적용되는 상용·가전·산업용 반도체 제품군으로, 전자제품의 전원 공급, LED 및 디스플레이 구동, 데이터 통신, 아날로그 신호 처리, 로직 제어 기능을 담당한다. 주요 제품은 TR Array IC, LED Driver IC, Voltage Regulator, Power Management IC, Interface IC, Operation Amplifier, Comparator, Audio IC, Logic IC, 누전차단기용 IC, 화재경보기용 IC 등이다. 적용 분야는 생활 가전의 디스플레이 및 구동부, 공기청정기·정수기 등 가전제품, 빌딩 자동화 시스템, 보안 시스템, 통신장비, 원격점검 계량기, 의료기기, 산업용 전원 시스템 등으로 다양하고, 동사의 기존 매출 기반 역할을 수행하였다.

아이케이세미콘(149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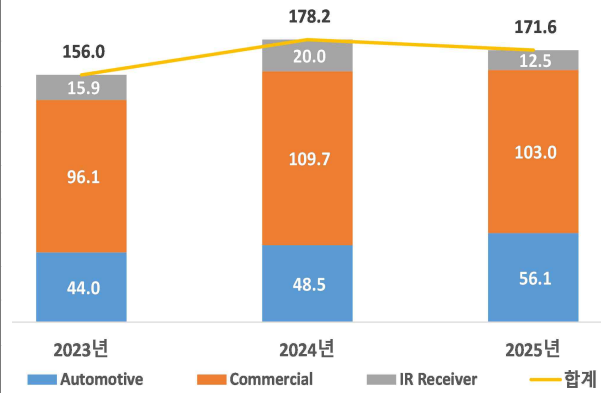
IR Receiver 부문은 리모컨 및 적외선 통신 기능이 필요한 전자제품에 적용되는 신호 수신용 반도체 제품군으로, 리모컨 기반 제어가 필요한 다양한 기기의 수신부에 적용되고, 주변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노이즈에 강한 제품과 장거리 수신이 가능한 제품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동사는 Noise 강화 제품, Long Distance 제품, High Performance 제품을 순차적으로 개발했으며, 향후 Chip Size Shrink 및 Low Cost 제품 개발을 통해 시장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동사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안정적 매출 기반인 Commercial, 성장성이 높은 Automotive, 신규 수요 확대가 기대되는 IR Receiver로 구성된다. Commercial 영역은 가전·산업용 범용 반도체를 통해 기존 매출 기반을 유지하고, Automotive 영역은 전장화 및 친환경차 확대에 따라 중장기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IR Receiver 영역은 IoT 및 스마트 기기 확산에 따른 적외선 통신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제품군으로 볼 수 있다.

[표 3] 동사의 제품 매출 실적

(단위 : 억 원, %)

구분	2023년	비중	2024년	비중	2025년	비중
Automotive	44.0	28.2%	48.5	27.2%	56.1	32.7%
Commercial	96.1	61.6%	109.7	61.6%	103.0	60.0%
TR ARRAY	29.6	19.0%	34.2	19.2%	38.5	22.4%
LED	0.9	0.6%	1.7	1.0%	1.0	0.6%
홈오토메이션 등	20.3	13.0%	23.7	13.3%	17.0	9.9%
INTERFACE	11.9	7.6%	12.9	7.2%	8.3	4.8%
기타 제품	33.4	21.4%	37.2	20.9%	38.2	22.3%
IR Receiver	15.9	10.2%	20.0	11.2%	12.5	7.3%
제품 매출 합계	156.0	100.0%	178.2	100.0%	171.6	100.0%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판매조직 및 판매전략

동사의 영업은 일반 유통형 반도체 판매와 고객 맞춤형 프로젝트 영업을 결합된 형태이다. 대부분의 제품을 각 애플리케이션 전문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별도 직매장과 영업소도 운영하고 있다. 차량용 반도체의 경우, 고객의 수요가 보장되는 직접 수요 고객과 개발 계약을 체결해 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개발 이후 사업화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자동차용 반도체는 고객 승인, 신뢰성 평가, 양산 적용까지 기간이 길고 공급사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개발 초기부터 고객 적용처와 연계되는 구조가 중요하다.

주요 고객군은 완성차 제조사 및 전장 부품사, 생활가전 업체, 산업용 전자제품 업체, 통신·소방·전력 계측 장비 업체로 구분된다. 동사는 국내 대기업 가전 고객에 대한 장기 납품 경험을 바탕으로 품질과 납기 신뢰성을 확보했고, 이를 타 고객군 확대의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다. 자동차용 반도체 부문에서는 국내 H·K사,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 전기차 제조사로 적용처를 확대하고 있으며, 해외 유통망도 활용하고 있다.

경쟁 전략은 국산화, 원가경쟁력, 고객 맞춤형 설계, 장기 신뢰성 확보로 요약된다. 동사는 해외 반도체 제조사가 점유한 일부 제품군에서 국내 세트 제조사의 부품 국산화와 원가 개선 수요를 공략해 왔다. 다만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브랜드 신뢰도, 인증 기간, 고객의 보수적 채택 성향이 강하므로 단기간 매출 확대보다는 적용 차종 확대와 신제품 승인 축적이 중요하다. 따라서 동사의 판매전략은 기존 제품의 원가구조 개선을 통해 수익성을 방어하고, 고객 연계형 자동차용 ASIC 프로젝트를 통해 중장기 매출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II. 시장 동향

차량 전장화·전동화·안전 기능 고도화로 수요가 확대되는 구조적 성장 시장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은 차량 내 전자제어 기능을 구현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으로, 전원 제어, 모터 구동, 배터리 관리, 조명 제어, 차량 통신, 센서, 인포테인먼트, 운전자 보조 기능 등 전장 시스템 전반에 적용된다. 자동차가 전자제어 기반 플랫폼으로 전환되어 차량 1대당 반도체 탑재 수와 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확산, 안전·편의 사양 고도화, ADAS 확대가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다만 높은 신뢰성, 장기 검증, 고객 승인 절차가 요구되어 진입장벽이 높고, 글로벌 대형 반도체 기업이 주도하고 있어 중소형 팹리스 기업은 특정 적용처와 고객 맞춤형 제품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

■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의 특성

동사의 목표시장은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으로 정의된다. 자동차용 반도체는 차량 내 전자제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메모리 반도체 전반을 의미하며, 전원 제어, 모터 구동, 배터리 관리, 조명 제어, 차량 내 통신, 센서, 인포테인먼트, 운전자 보조 기능 등 다양한 전장 시스템에 적용된다.

자동차용 반도체의 수요는 완성차 제조사의 신차 개발, 전장 부품사의 모듈 공급,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보급, 안전·편의 사양 확대를 통해 발생한다. 특히 전기차는 배터리, 인버터, 전력 변환, 절연, 전류 감지, 모터 제어 등 전력 관련 부품의 비중이 높아 내연기관차보다 반도체 사용량이 많다. 하이브리드차도 전력 제어와 에너지 효율 관리에 필요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는 구조를 가진다.

자동차는 장기간 사용되는 내구재이며, 반도체 불량이나 차량 고장이나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품 설계 단계부터 신뢰성, 내환경성, 장기 공급 안정성이 중요하게 평가되어 진입장벽이 높다. 신규 제품이 실제 차량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고객사 검증, 품질 시험, 양산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은 일반 전자제품용 반도체보다 길고 보수적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단기간에 대규모 매출을 창출하기는 쉽지 않지만, 일단 고객 승인과 양산 이력을 확보하면 장기 공급 기반을 형성할 수 있는 시장이다.

경쟁 구조는 글로벌 대형 반도체 기업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전력 반도체, 마이크로컨트롤러, 센서, 차량용 통신, 인포테인먼트,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 주요 영역에서 해외 선도 기업들이 강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폭넓은 제품군,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 글로벌 완성차 고객과의 장기 거래 관계를 기반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비해 동사와 같은 중소형 팹리스 기업은 특정 적용처, 고객 맞춤형 제품, 국산화 수요, 원가 경쟁력, 빠른 기술 대응을 중심으로 시장 진입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가격 측면에서는 완성차 업체의 원가 절감 요구가 지속적으로 작용한다. 자동차 산업은 부품 단가, 품질, 납기, 리콜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관리되는 산업이므로, 반도체 공급업체는 기술력뿐 아니라 안정적인 공급 능력과 가격 대응력을 함께 요구받는다. 특히 바디 전장, 조명, 전원관리, 모터 제어 등 동사가 주력하는 영역은 고성능 연산 반도체 대비 개별 제품 단가가 높지 않을 수 있어, 제품 수명주기 동안의 원가 관리와 적용 차종 확대가 수익성 확보의 핵심 요인이 된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고신뢰성, 저전력, 소형화, 통신 연계, 보호 기능 내장 등이 중요해지고 있다. 차량 내 전자제어 기능이 증가할수록 각 부품은 더 작은 공간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해야 하며, 전자파, 온도, 전압 변동 등 자동차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견뎌야 한다. 또한 단순한 전원 공급이나 스위칭 기능을 넘어, 센싱·제어·보호 기능을 통합한 IC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핵심 트렌드 및 시사점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차량 전장화의 확대이다. 차량 내 기능이 전자제어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반도체 적용 영역은 파워트레인과 인포테인먼트를 넘어 조명, 도어, 시트, 미러, 공조, 배터리, 충전, 안전 시스템까지 확장되고 있다. 과거 일부 고급 차종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전장 기능이 중저가 차종으로 확산되면서 자동차용 반도체 수요의 저변도 넓어지고 있다. 이는 특정 프리미엄 모델에 의존하던 수요가 다양한 차급과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운전자 보조 및 안전 기능 확대도 시장 성장의 주요 요인이다. 차량은 카메라, 센서, 통신 모듈, 제어 프로세서를 활용해 차선 유지, 충돌 방지, 주차 보조, 운전자 상태 감지 등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은 고성능 연산 반도체뿐 아니라 전원 공급, 신호 처리, 인터페이스, 센서 구동, 보호 회로 등 주변 반도체 수요를 함께 증가시킨다.

세계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은 2023년 548.5억 달러 수준에서 2028년 861.4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9.4%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시장도 같은 기간 49.3억 달러에서 약 77.4억 달러 수준으로 연평균 9.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자동차 생산량 증가만으로 설명되는 성장이 아니라, 차량 1대당 반도체 탑재 금액이 상승하는 구조적 변화에 기반한다. 특히 전장 기능 고도화와 전동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은 일반 경기 변동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성격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시장 성장성이 모든 업체의 실적 개선으로 동일하게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용 반도체는 고객사의 개발 일정과 승인 절차에 따라 매출 발생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신규 제품이 개발되더라도 양산 적용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완성차 업체의 생산 조정, 전기차 수요 둔화, 재고 조정, 부품 단가 인하 요구가 단기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중국 시스템 반도체 업체의 저가 공세도 중소형 팹리스 기업에는 부담 요인이다. 따라서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에서는 기술 개발 능력뿐 아니라 고객사와의 장기 협업, 품질 대응, 공급 안정성, 원가 절감 역량이 함께 요구된다.

종합하면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은 동사에 중장기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높은 검증 비용과 경쟁 압력을 요구하는 시장이다. 동사의 성장 가능성은 시장 규모 확대 자체보다 기존 제품의 적용 차종 확대, 신규 Automotive IC의 고객 승인,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관련 제품의 양산 전환, 품질 신뢰성 축적 여부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동사는 범용 제품 확대보다는 고객 수요가 명확한 전원관리, 모터 제어, 통신 기반 제어, 절연 반도체 등 세부 영역에서 제품 완성도와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장 대응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글로벌 자동차 반도체 시장 (단위 : 억 달러)

(단위 : 억 달러)

[그림 2] 국내 자동차 반도체 시장 (단위 : 억 달러)

(단위 : 억 달러)



자료: Markets and Markets, Grand View Research,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III. 기술분석

차량용 전원관리·모터 구동·통신 제어 반도체 중심의 고신뢰성 설계 역량 보유

동사는 ASIC, Analog IC, Logic IC 설계 역량을 기반으로 자동차·가전·산업용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하며, 차량용 전원관리, 모터 구동, LIN 통신, 조명 제어, 절연형 전력 변환 분야에서 기술 역량을 축적하고 있다. 최근 전장화·전동화 흐름에 맞춰 알터네이터 제어, 전기자동차용 절연 반도체, 전류센서, 소형 모터 구동 반도체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차량용 레귤레이터, LIN 트랜시버, DC 모터 구동 제어, 전류미러 회로 등 연관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고신뢰성 설계 경험과 적용처 중심 사업화 역량이 경쟁력이다.

■ 핵심 보유기술 및 특징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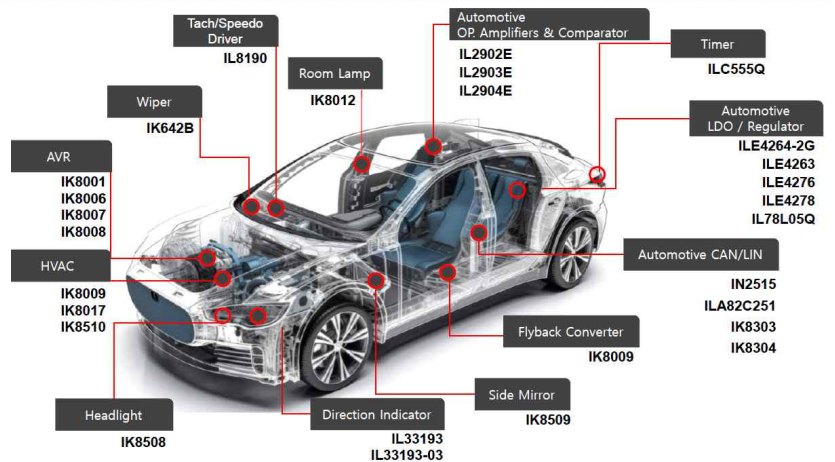
동사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 팹리스 기업으로 자동차, 가전, 조명, 통신, 산업용 전자제품에 적용되는 아날로그 및 혼합신호 반도체 설계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ASIC, Analog IC, Logic IC 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특히 차량용 전원관리, 모터 구동, 통신 인터페이스, 조명 제어, 절연형 전력 변환 등 자동차 전장 부품에 적용되는 반도체 설계 경험을 축적해 왔다. 팹리스 구조이지만, 설계와 품질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외부 파운드리 및 패키징·테스트 전문업체를 활용함으로써 다품종 시스템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동사의 핵심 보유기술은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서 뚜렷하게 확인된다. 자동차용 반도체는 고온, 전압 변동, 전자파, 장기 사용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해야 하므로 일반 전자제품용 반도체보다 설계 난이도와 신뢰성 요구 수준이 높다. 동사는 알터네이터용 레귤레이터, LIN 통신 기반 제어 반도체, 사이드미러 및 모터 구동 제어 반도체, 룸램프 및 LED 조명 제어 반도체, 절연형 플라이백 컨버터 등 차량 내 전원·바디·조명·통신 제어 영역에 적용 가능한 제품군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동사가 고성능 연산 반도체보다 차량 내 세부 기능을 안정적으로 제어하는 아날로그·전원관리·제어 반도체 영역에 기술적 강점이 있음을 의미한다.

고객 적용처와 연계된 맞춤형 개발 역량이 특징점이다. 자동차용 반도체는 신규 공급사가 단독으로 제품을 개발해 시장에 진입하기보다, 완성차 및 전장 부품사의 적용 요구와 검증 절차에 맞춰 개발되는 경우가 많다. 동사는 고객 요구 기반의 ASIC 개발 경험을 통해 제품 개발 이후 양산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가전·산업용 반도체에서 축적한 원가 경쟁력과 국산화 경험을 자동차용 반도체로 확장하고 있어, 수입 대체 수요와 고객 맞춤형 제품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동사의 기술 경쟁력은 글로벌 대형 차량용 반도체 기업과 전면적으로 경쟁하는 구조라기보다 특정 적용처와 세부 기능에 특화된 제품 개발 역량에서 의미가 크다. 따라서 동사는 범용 제품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고객사가 요구하는 기능을 소형화·집적화하고 차량 환경에 맞는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강점이 있다. 향후 Automotive IC 제품의 적용 차종 확대, 신규 전기차·하이브리드차용 제품의 양산 승인, 고객 요구 기반 제품 개발의 반복성 확보 여부에 따라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 동사의 자동차 반도체 제품군



자료: 동사 IR자료(2026.04),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연구개발 역량

연구개발활동은 기존 가전·산업용 반도체 제품군을 기반으로 하면서, 최근에는 자동차용 반도체 중심으로 축이 이동하고 있다. 2005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이후 시스템 반도체 설계 역량을 내부에 축적해 왔으며, 2010년 이후 자동차용 반도체 개발 계약과 국책과제를 통해 차량용 제품군을 확대해 왔다. 연구개발의 방향은 범용 반도체 개발보다는 고객 적용처가 명확한 반도체를 설계하고, 이를 양산까지 연결하는 데 맞춰져 있다.

자동차용 반도체 연구개발은 배터리, 알터네이터, 모터 구동, LIN 통신, 조명 제어, 절연형 전력 변환 등 차량 전장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동사는 자동차 발전기용 IC, 자동차 파워 홀딩 IC, 헤드라이트 레벨링 IC, 자동차 배터리 관리용 IC, 자동차용 LIN 통신 레귤레이터, 자동차 룸램프 반도체 등을 순차적으로 개발해 왔다. 최근에는 전기자동차용 절연 반도체, 전류센서 반도체, 자동차용 소형 모터 구동 반도체 등 전동화 차량과 관련된 제품 개발을 확대하고 있고, 차량 전장화와 전동화에 따라 증가하는 전력 제어 및 보호 기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 방향으로 해석된다.

동사의 연구개발은 국책과제와 고객 프로젝트가 결합된 형태로, 국책과제는 중소 펌리스 기업이 부담하기 어려운 선형 기술 확보와 제품 개발 리스크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며, 고객 프로젝트는 실제 수요처와 연결된 제품 개발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동사의 연구개발 구조는 시장 특성을 반영해 제품 기획, 설계, 검증, 양산 적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편, 기존 내연기관차용 제품 개발 경험을 기반으로 전기차용 절연 반도체와 전류센서 등으로 연구개발 영역을 확장하고 있어, 전환기 자동차 시장에서 제품 적용 범위를 넓히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 지식재산권 현황

동사는 차량용 전장 제어, 전원관리, 아날로그 회로, 누전전류 측정 등 동사의 핵심 사업 영역과 관련된 등록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 등록 특허는 전압 레귤레이터가 통합된 LIN 트랜시버 및 이의 동작 방법, 차량용 레귤레이터 장치, 사이드미러용 DC 모터 구동 제어 시스템 및 방법, 대지저항성 누전전류 측정기, 효율적인 캐스캐이드 전류미러 회로, 정밀 MOS 전류미러 회로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포트폴리오는 차량용 통신·전원 제어 기술과 기초 아날로그 회로 기술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제품 개발 방향과 일정 부분 연계되어 있다.

차량용 제품 관련 지식재산권은 동사의 Automotive IC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다. 전압 레귤레이터 통합형 LIN 트랜시버 기술은 차량 내 저속 통신 네트워크와 전원 안정화 기능을 결합한 것으로, 바디 전장 및 모듈 제어 영역에서 활용 가능성이 있다. 차량용 레귤레이터 장치 특허는 알터네이터 발전 전압 제어와 관련된 기술로, 내연기관차 및 하이브리드차의 전력 효율 관리와 연결된다. 사이드미러용 DC 모터 구동 제어 기술은 차량 바디 부품의 모터 제어와 보호 기능을 구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어, 동사의 모터 구동 및 바디 전장 반도체 제품군과 연관된다.

아날로그 회로 관련 특허는 동사의 설계 기반 기술을 뒷받침한다. 전류미러 회로 관련 특허는 아날로그 IC 설계에서 전류 기준과 신호 안정성을 구현하는 기초 회로 기술에 해당한다. 이러한 기술은 단일 제품에만 국한되기보다 전원관리, 센싱, 신호 처리, 보호회로 등 다양한 아날로그 반도체 설계에 활용될 수 있다. 누전전류 측정 관련 특허는 동사가 과거부터 영위해 온 누전차단기용 IC 및 산업용 전자제품 시장과 연결되며, 자동차용 반도체 외 사업 기반의 기술 축적을 보여준다.

■ PEST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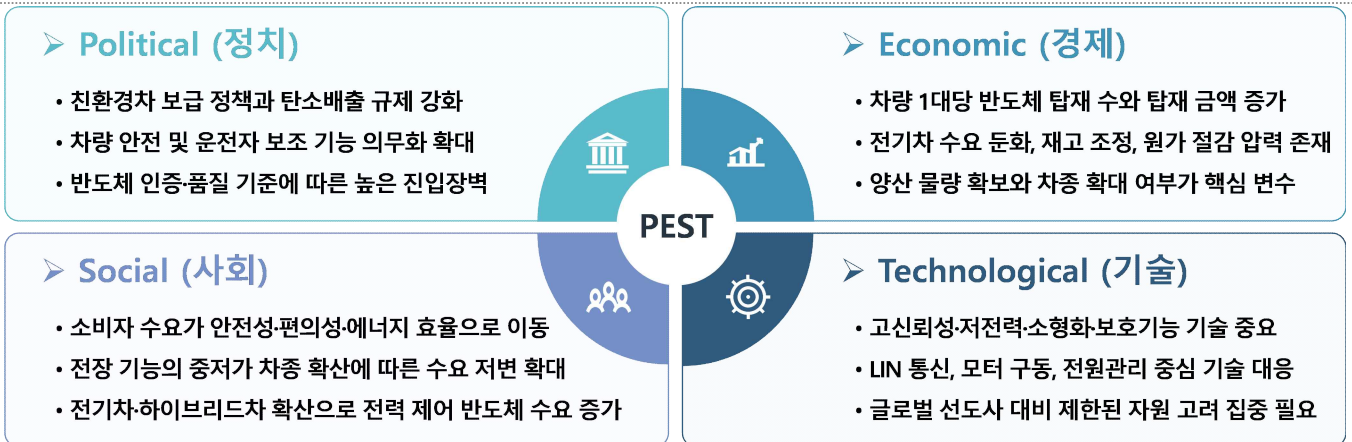
동사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탄소배출 저감, 차량 안전 규제 강화와 같은 정책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각국의 친환경차 보급 정책과 연비·배출가스 규제는 차량 내 전력 제어, 배터리 관리, 모터 구동, 절연 및 보호 기능 관련 반도체 수요를 확대시키고, 차량 안전 및 운전자 보조 기능의 의무화 흐름은 전장 부품의 탑재 범위를 넓히고 있어 동사의 Automotive IC 사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다만 자동차용 반도체는 국가별 안전·품질 기준과 완성차 고객의 인증 절차가 엄격해 시장 진입과 양산 적용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구조이며, 정책 변화가 실제 매출로 연결되기까지는 고객 승인과 신뢰성 검증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은 차량 1대당 반도체 탑재 수와 탑재 금액이 증가하는 구조적 성장 시장이다. 전장화와 전동화 확산은 자동차 생산량 증가와 별개로 반도체 수요를 확대시키는 요인이며, 동사가 보유한 전원관리, 모터 제어, LIN 통신, 조명 제어, 절연형 전력 변환 제품군은 수요 변화와 연결된다. 반면 완성차 산업은 경기 변동, 전기차 수요 둔화, 재고 조정, 원가 절감 압력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중소형 펌리스 기업은 글로벌 대형 반도체 기업 대비 가격 협상력과 공급망 대응력이 제한적이고, 다품종 소량 생산 특성은 수익성 확보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실적 개선은 적용 차종 확대와 양산 물량 확보 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자의 차량 구매 기준이 주행 성능 중심에서 안전성, 편의성, 에너지 효율, 연결성으로 확대되면서 차량용 반도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조명, 미러, 도어, 시트, 공조, 인포테인먼트, 운전자 보조 기능 등 다양한 편의·안전 기능이 중저가 차종까지 확산되고 있어, 바디 전장과 전원관리 반도체 수요가 증가된다. 또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관심은 배터리 관리, 전력 변환, 절연, 전류 감지 등 관련 반도체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동사는 고성능 연산 반도체보다는 차량 내 세부 기능을 제어하는 아날로그·전원관리·통신 제어 반도체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자동차의 전자제어 기능 확대 흐름에서 수요 기반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은 고신뢰성, 저전력, 소형화, 고집적화, 통신 연계, 보호 기능 내장이 핵심 기술 방향이고, 차량 환경은 온도, 전압, 전자파, 장기 사용 조건이 까다로워 일반 반도체보다 높은 설계 안정성과 품질 검증 능력이 요구된다. 동사는 ASIC, Analog IC, Logic IC 설계 역량을 기반으로 알터네이티브 제어, LIN 통신, 모터 구동, 룸램프 및 조명 제어, 전기차용 절연 반도체 등 전장용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으며, 맞춤형 개발 경험과 특허를 통해 적용처 중심의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다만 글로벌 선도시 대비 연구개발 자원과 제품 포트폴리오가 제한적이므로 대응가능한 영역에서 기술 완성도와 양산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4] PEST 분석



자료: 서울평가정보(주)

IV. 재무분석

자동차용 반도체 중심의 매출 기반과 재무안정성 유지

동사는 3년간 2023년 156.8억 원, 2024년 178.8억 원, 2025년 172.3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Automotive용 반도체 매출 비중이 32.7%로 핵심 제품 기반이 유지되고 있다. 수익성은 영업흑자를 지속했으나 영업이익률이 하락하여 비용 부담과 가격 경쟁의 영향이 나타났다. 재무구조는 유동비율이 높고 현금및현금성자산이 증가해 단기 유동성은 안정적인 수준으로 판단되며, 배당을 지속하면서도 자본 기반을 유지하고 있어 재무 완충력은 양호한 수준이다.

■ 자동차용 반도체 중심의 매출 구조

동사의 3개년 매출액은 2023년 156.8억 원, 2024년 178.8억 원, 2025년 172.3억 원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는 2023년 대비 14.0% 증가하며 전년도 경기침체 이후 판매량 회복이 반영되었으나, 2025년에는 전년 대비 3.7% 감소하였다. 2025년 하반기 전방경기 악화와 중국 시스템반도체 기업의 저가 경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제품별로 살펴보면, [Automotive]용 반도체가 2023년 44.0억 원, 2024년 48.5억 원, 2025년 56.1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32.7%를 차지하며 단일 품목 기준 가장 큰 비중을 보였고, 동사의 핵심 매출원으로 확대되었다. [TR ARRAY] 역시 2023년 29.6억 원, 2024년 34.2억 원, 2025년 38.5억 원으로 증가하여 가전·디스플레이 구동용 반도체 부문의 매출 기반을 유지하였다. 반면 [전화기·홈오토폰이션]은 2023년 20.3억 원, 2024년 23.7억 원, 2025년 17.0억 원으로 비중이 축소되었고, [IR Receiver] 역시 3년간 15.9억 원, 20.0억 원, 12.5억 원으로 줄었다. [Interface]는 11.9억 원, 12.9억 원, 8.3억 원, [LED]는 0.9억 원, 1.7억 원, 1.0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였다. 그 외 [기타 제품]은 3년간 33.4억 원, 37.2억 원, 38.2억 원으로 유사한 규모를 유지하였고, [기타 용역]은 0.8억 원, 0.6억 원, 0.7억 원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동사는 신제품 출시 등으로 매출 회복 및 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은 차량 전장화, 전기차·하이브리드차 확대, 배터리 매니지먼트 및 전력제어 반도체 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동사의 매출액도 완만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 비용 부담 속 영업흑자 지속

동사의 영업이익은 2023년 20.3억 원, 2024년 20.2억 원, 2025년 16.4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영업이익률은 각각 13.0%, 11.3%, 9.5%로 하락하였다. 2025년에는 매출 감소와 가격 경쟁 부담이 반영되며 수익성이 낮아졌다. 판관비율의 경우 2023년 19.4%, 2024년 23.4%, 2025년 24.5%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는 전년 대비 판매보증비(0.8억 원→1.8억 원), 경상연구개발비(13.3억 원→14.5억 원) 등 비용 부담이 다소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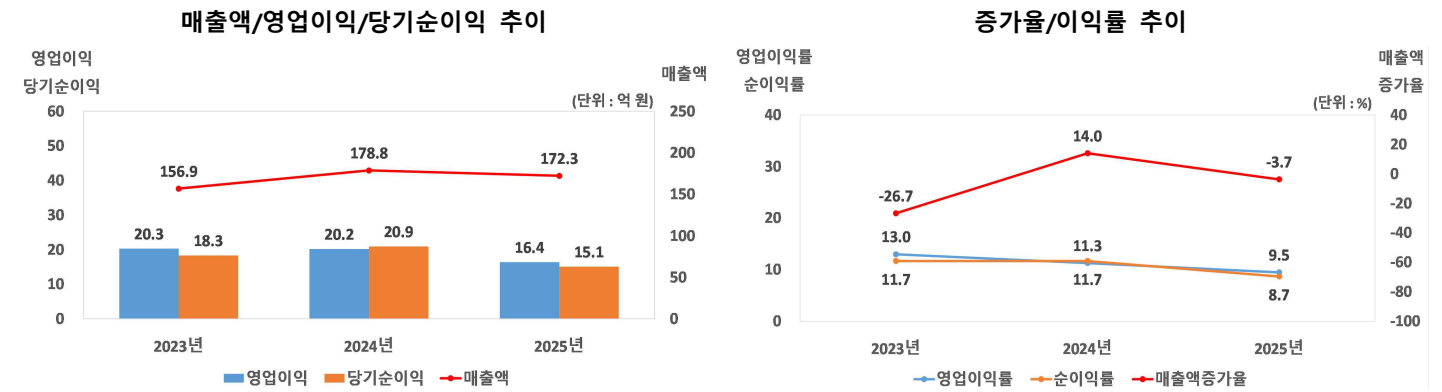
당기순이익은 2023년 18.3억 원, 2024년 20.9억 원, 2025년 15.1억 원으로 나타났고, 순이익률은 각각 11.7%, 11.7%, 8.7%를 기록하였다. 2024년에는 외환차익 발생(4.6억 원) 등으로 순이익이 개선되었으나, 2025년에는 금융비용 증가(1.9억 원→3.0억 원)와 영업이익 감소가 함께 반영되며 순이익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아이케이세미콘(149010)

동사는 2025년 매출 둔화와 경쟁 심화로 인하여 이익률이 하락하였으나, 수익성은 여전히 3개년 모두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동사는 기존 부품의 원가구조 개선과 시장 공급가 조정을 통한 원가 경쟁력 유지 노력을 병행하고 있으므로 향후 신제품 매출 기여, 자동차용 반도체 비중 확대, 판매비 관리 여부에 따라 수익성은 개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 동사 연간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높은 유동성 기반의 안정적 재무구조

동사의 총자산은 2023년 154.6억 원, 2024년 169.0억 원, 2025년 약 176.9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현금및현금성자산은 2023년 51.4억 원, 2024년 56.5억 원, 2025년 69.1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유동비율은 2023년 559.0%, 2024년 610.3%, 2025년 607.8%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한편, 동사는 반도체설계업체로서 파운드리 및 패키징·테스트 전문업체에 외주생산을 진행하고 있어 유형자산(설비) 규모는 크지 않은 수준이었다.

동사의 부채총계는 2023년 28.6억 원, 2024년 29.4억 원, 2025년 29.3억 원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부채비율 역시 2023년 22.7%, 2024년 21.0%, 2025년 19.9%로 하락하였다. 단기차입금은 2023년 9.0억 원, 2024년 5.0억 원, 2025년에도 5.0억 원으로 크지 않은 수준으로 변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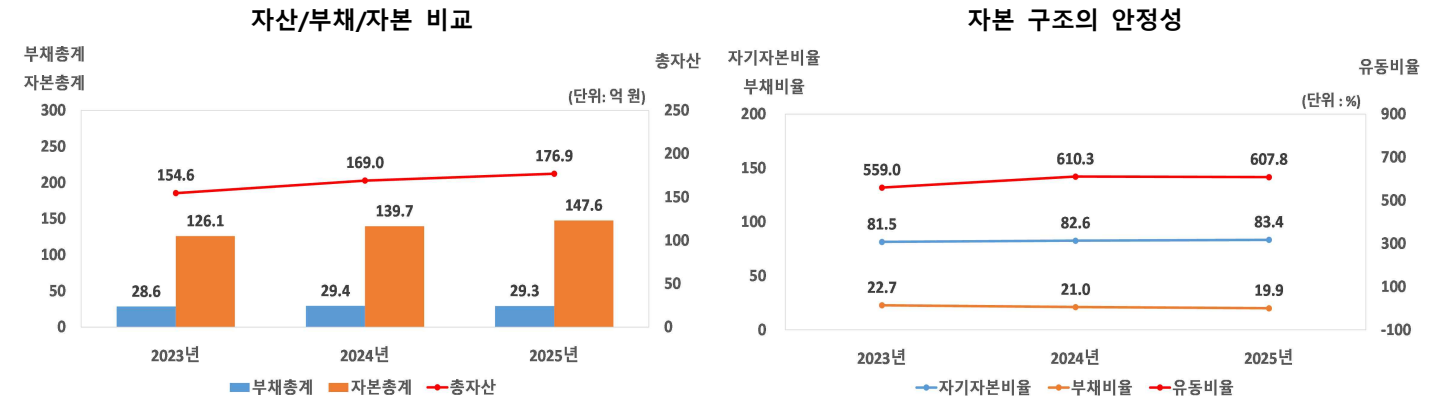
자본총계는 2023년 126.1억 원, 2024년 139.7억 원, 2025년 147.6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동사는 순이익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을 확충하였으며, 최근 3개년 모두 배당을 진행하는 등 이익 창출과 주주환원이 병행되었다.

종합하면 동사의 재무구조는 높은 유동비율, 현금성자산 증가, 낮은 부채 부담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준으로 판단된다. 향후 신제품 개발과 자동차용 반도체 확대를 통해 수익성이 개선될 경우 재무안정성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이케이세미콘(149010)

[그림 6] 동사 연간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표 4] 동사 연간 요약 재무제표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항목	2023년	2024년	2025년
매출액	156.8	178.8	172.3
매출액증가율(%)	-26.7	14.0	-3.7
영업이익	20.3	20.2	16.4
영업이익률(%)	13.0	11.3	9.5
순이익	18.3	20.9	15.1
순이익률(%)	11.7	11.7	8.7
부채총계	28.6	29.4	29.3
자본총계	126.1	139.7	147.6
총자산	154.6	169.0	176.9
유동비율(%)	559.0	610.3	607.8
부채비율(%)	22.7	21.0	19.9
자기자본비율(%)	81.5	82.6	83.4
영업현금흐름	28.3	21.4	24.5
투자현금흐름	-8.6	-4.6	-3.5
재무현금흐름	-6.3	-12.7	-8.8
기말현금	51.4	56.5	69.1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아이케이세미콘(149010)

■ 동사 실적 전망

Automotive 부문은 2023년 44.0억 원에서 2025년 56.1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2026년에는 60.0억 원까지 확대되며 매출 비중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동사가 기존 가전·산업용 반도체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자동차용 반도체 중심으로 성장축을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동차 전장화와 전동화 확대로 전원관리, 모터 구동, LIN 통신, 절연형 전력 변환 등 동사의 Automotive IC 제품군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적용 차종 확대와 신규 제품의 양산 전환 여부가 향후 매출 성장의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Commercial 부문은 최대 매출 기반이며, 매출액은 2025년 10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2026년에는 105.0억 원 수준이 예상된다. 전원관리 IC, TR Array, 인터페이스 IC, 산업용·가전용 반도체 등 기존 제품군을 중심으로 매출을 형성하고 있으며, 급격한 성장보다는 기존 고객 기반과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매출을 유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방 가전 및 산업용 전자제품 수요 변동, 가격 경쟁, 범용 반도체 시장의 재고 조정은 해당 부문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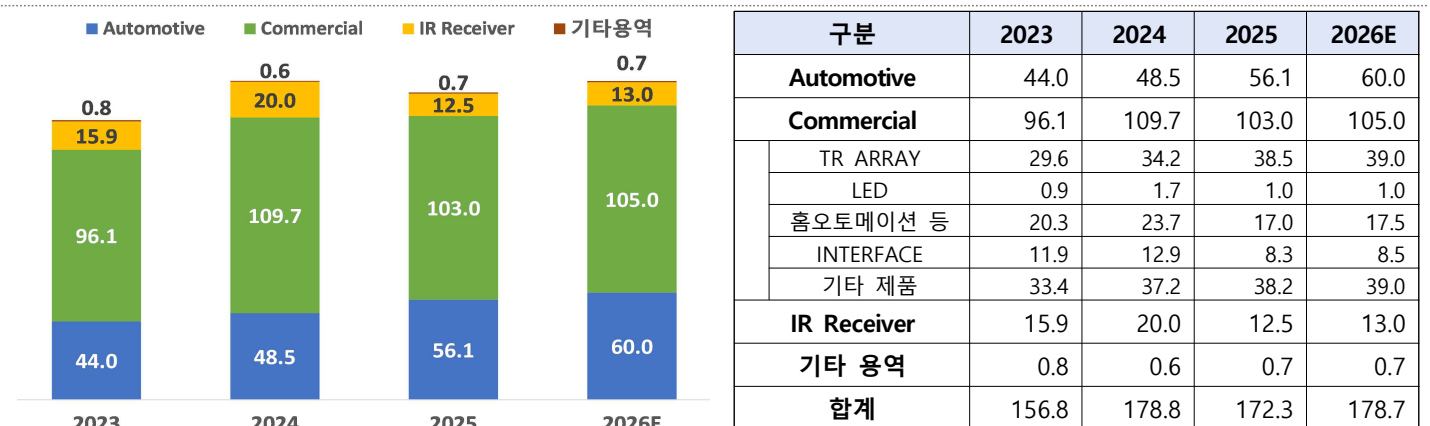
IR Receiver 부문 매출액은 2025년에는 1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2026년에는 13.0억 원으로 제한적인 회복이 예상된다. 해당 부문은 가전, 로봇청소기, 셋톱박스 등 리모컨 수신 기능이 필요한 제품군에 적용되나, 최근 실적 흐름을 고려하면 단기 성장 동력보다는 보조적인 매출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향후 노이즈 내성 강화, 장거리 수신, 소형화 등 제품 개선을 통해 고객 적용처를 확대할 여지는 있으나, 전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Automotive 및 Commercial 부문 대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용역은 2026년 예상 매출 0.7억 원으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고, 실적 방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되기보다, 개발 지원 또는 부수적 용역 성격의 매출로 해석된다.

동사의 2026년 실적은 2025년의 일시적 감소에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전체 성장 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 다만 Automotive 부문의 비중이 지속 확대되고 있어 사업 포트폴리오의 질적 변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Commercial 부문이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유지하는 가운데 Automotive 부문이 적용 차종 확대, 신규 제품 승인, 전기차·하이브리드차 관련 제품 양산으로 연결될 경우 증장기 성장성이 강화될 수 있다. 반면 자동차용 반도체의 긴 고객 승인 기간, 전방 경기 둔화, 가격 경쟁, IR Receiver 부문의 변동성은 실적 개선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요인이다. 따라서 동사의 향후 실적은 단기적으로 170억 원대 후반의 안정적 회복, 증장기적으로는 Automotive 중심의 매출 구조 전환 여부에 따라 성장성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7] 동사 연간 실적 전망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자동차 전장화·전동화 흐름에 맞춰 Automotive IC 중심의 증장기 성장 기반 강화 중

동사는 최근 해외 법인 청산을 통해 연결 구조를 정비하는 한편, Automotive IC 중심의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2025년 결산 기준 보통주 1주당 2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해 주주환원 기조도 유지하고 있다. 기존 Commercial 제품군을 통해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자동차 전장화·전동화 확산에 맞춰 차량용 아날로그·전원관리·통신 제어 반도체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자동차용 반도체는 고객 승인과 신뢰성 검증 기간이 긴 시장이므로, 동사의 성장성은 신규 제품 개발 자체보다 실제 양산 적용, 적용 차종 확대, 반복 수주 확보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 최근 변동사항

2025년 해외법인 중 IK SEMICON(HK) CO., LTD가 청산되면서 연결대상 종속회사 수가 감소하였다. 이는 사업 포트폴리오의 변화라기보다 해외법인 운영 구조를 정비한 성격으로 판단되며, 동사의 핵심 사업은 기존과 같이 시스템 반도체 설계 및 자동차용 반도체 제품 개발로 유지되고 있다.

기술 및 제품 측면에서는 전기자동차용 절연 반도체 개발이 완료되어 자동차용 반도체 중심의 개발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동사가 기존 내연기관차용 전원관리·제어 반도체에서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관련 전력 제어·보호 기능으로 기술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개발 완료 자체가 즉각적인 외형 성장으로 이어지기보다는 향후 양산 적용 가능성을 확보하는 선행 성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2025년 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2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하였다. 배당금 총액은 6.2억 원이며, 배당 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 시가배당률은 보통주 기준 3.7%로 제시되었고, 배당금은 발행주식수 312만 주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이는 동사가 중소형 코넥스 상장 펩리스 기업임에도 일정 수준의 현금배당 정책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안정적 현금흐름과 주주환원 의지를 나타내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 향후 전망

동사의 사업 방향은 자동차용 반도체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환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실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자동차 반도체 시장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ADAS, 차량 전장화 확산을 배경으로 증장기 성장성이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차량 구조가 기계 중심에서 전자제어·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전력 제어, 모터 구동, 통신 인터페이스, 센싱 및 보호회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동사는 고성능 연산 반도체보다 차량 내 세부 전장 기능을 제어하는 아날로그·전원관리·통신 제어 반도체에 사업 초점을 두고 있다. 알터네이티브 제어, LIN(Local Interconnect Network) 통신, 모터 구동, 램프 및 바디 전장 제어, 전기자동차용 절연 반도체 등은 전장화와 전동화 흐름에서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는 글로벌 대형사가 주도하는 고성능 프로세서 시장과 직접 경쟁하기보다, 고객 적용처가 명확한 세부 부품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확보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향후 성장의 핵심은 신규 제품 개발보다 고객 승인과 양산 적용의 누적에 있다. 자동차용 반도체는 신뢰성 검증, 품질 인증, 차종 적용까지의 기간이 길고 공급사 변경이 보수적으로 이뤄지는 시장이므로, 개발 완료가 즉각적인 실적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 다만 일단 고객사 검증과 양산 이력을 확보하면 장기 공급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동사의 전기차용 절연 반도체, 전류센서, LIN 통신 반도체, Digital Isolator 등 후속 제품군은 기술적 성과 자체보다 실제 적용 차종 확대와 반복 수주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이케이세미콘(149010)

기존 Commercial 부문은 단기적으로 사업 안정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지속할 전망이다. 전원관리 IC, TR Array, 인터페이스 IC 등은 가전·산업용 전자제품 수요에 연동되므로 고성장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동사가 자동차용 반도체 비중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존 고객 기반과 현금창출력을 제공하는 기반 사업으로 기능할 수 있다. 반면 범용 제품 가격 경쟁, 전방 수요 둔화, 재고 조정은 해당 부문의 성장성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종합적으로 동사는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의 구조적 성장 흐름에 진입해 있으나, 단기간의 급격한 외형 확대보다는 제품 승인과 양산 이력이 축적되며 점진적으로 사업 체질이 개선되는 형태가 예상된다. 전장화·전동화 확산은 동사의 전원관리, 모터 제어, 통신 제어, 절연 반도체 제품군에 우호적인 수요 환경을 제공하지만, 글로벌 경쟁사 대비 제한적인 제품 포트폴리오와 자동차용 반도체의 긴 검증 기간은 리스크 요인이다. 동사의 전망은 시장 성장률 자체보다 고객 맞춤형 Automotive IC가 실제 양산 적용으로 연결되는 속도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이케이세미콘(149010)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N/A	-	-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자료: 네이버증권(2026.05.29)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7

기업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아이케이세미콘	X	X	X